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 변경 추진

전북 고창군이 고창일반산업 단지를 ESG 친환경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부터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형 산업 단지로 조성해 왔다. 하지만 그간 시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잠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애를 태워 왔다.

이에 고창군은 새로운 고창시대를 맞아 명칭을 바꾸고,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등 최적의 입지 조건과 각종 이점들을 내세워 건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자체 선정한 산업단지 명칭을 토대로 오는 28일부터 10월 2일간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상급과정 모집

부안군이 2023년 8월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개최 및 부안지역 스카우트를 이끌어갈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참여자 20명을 9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참가 대상은 초·중급훈련을 이수한 부안군민으로 세계잰버리 성공개최와 부안스카우트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과정은 10월 21~23일, 10월 28~30일 2박3일 2회 과정으로 출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실시되며,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조례에 의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잰버리운영팀(063-580-4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맞춤형 청년정책 '눈길'

'창업농시설장비 지원' 등 체감형인프라 구축



민선8기 고창군이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해 '고창형 청년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핵심은 기존 청년층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청년이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감형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고창군은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을 청년의 아이디어와 접목한 '창업농 시설장비 지원' 등 청년 농림수산업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 유출을 막는다.

특히 5000평에 달하는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 이를 지역 청년들에게 5년간 임대하면서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 창업농의 영농정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후계농 배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취업, 주거, 생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든다. 기존 고추종합유통센터로 계획된 '청년 거점공간 및 창업센터'를 유동인구가 많은 읍내권으로 전진 배치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방치된 마을창고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카페 등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청년 취·창업을 돕는다. 또 구시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청년 푸드트럭 등 명품관광 푸드코트를 설치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고창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청년 기본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청년정책 동아리에서 청년정책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제를 연계함으로써 청년 및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매년 9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포럼·청년정책 제안제도, 명예 청년군수제 등을 도입하여 고창청년의 자긍심을 높여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이 돌아오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지리의 인프라 질이 청년들을 끌어들이듯 도시의 질 역시 마찬가지이며 단순히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창군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고창에 사는 일이 의미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줄 때 고창군은 행복도시·활력도시가 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올겨울 독감 예방하세요"

정읍시, 21일부터 어린이·임산부 대상 무료접종

정읍시가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미리 접종받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 진행됨에 따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분산해 접종 시작 시기를 달리 진행한다.

우선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자인 어린이(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처음 접종 대상자) 접종을 시작한다.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하거나 과거 1회만 접종 한 대상자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과거 인플루엔자 접종력이 있는 만 9세~13세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는 10월 5일부터 1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만 70~74세는 17일부터 만 65~69세는 20일부터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ad.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시 질환 주의 당부

부안군은 가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날 수 있으며 가파른(딱지) 형상이 특징적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주로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C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긴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된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통화폭탄' 큰 성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23개 읍면동 확대 운영

정읍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전북 최초로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질적인 60%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91%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등 약 200여 장의 불법 광고물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계도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했다.

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단속 효과를 위해 올해는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교육도 마쳤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동호 특산물 첫새우 명품화 협약 체결

고창군의 바닷가 마을 어업인들이 손잡고 첫새우를 활용한 명품명산 상품개발에 나섰다.

18일 고창군 심원면 등에 따르면 사등마을 검당영농조합법인(대표 이광재), 고창갯벌 천일염영농조합(대표 김동선), 해리면 동호어촌뉴딜영농조합법인(대표 표재호)이 첫새우 브랜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동호 특산물 첫새우 브랜드링 작업, 자연 전통계승, 천일염 명품화 공동교육, 공동상품 개발,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라남군 심원면장은 "3개 마을과 영

농법인 첫새우가 고창특산품으로 자리매김이 될수있도록 협약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고창의 치유문화를 선도하는 식문화 명품 브랜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새우젓을 시작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들은 향후 동호 일대에서 생산되는 첫새우에 송하가투가 날리는 천일염과 어민의 땀이 흠뻑 뻗 자염으로 서해안 칠산바다 최고의 별미 '첫새우' 상품을 개발해 내린 상반가에 출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